주차장 된 광주여고…전남방직·중앙초도 불안

슬금슬금 사라지는 광주 근현대 건축물

일제강점기 슬픔 담긴 '학동8거리' 아파트 개발

시골 아낙 붐비던 '남광주역'은 공용 화장실로

도시재생, 특히 쇠락하고 있는 구도심 재생이 최근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래 전 형성된 구도심은 조선시대는 물론 근현대의 역사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유럽·일본은 물론 군산, 대구 등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는 이를 구도심 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유지·보존·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구도심 일대에 존재했던 근현대 자원들은 시와 소유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자원들이 아파트단지,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라진 주요 근현대 유산은 남광주역, 학동8거리, 옛 광주여고 건물 등이다. 이밖에도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광주의 역사, 문화, 전통을 간직한 자산들이 소리소문없이 철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용역을 발주해 도시재생거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으나, 이 조사에서도 누락된 자원들이 상당한데다 자원의 유지·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일제강점기 후반 대표적인 역사 건물 '남광주역'=광주에 철도가 가설된 것은 1922년 7월이다. 1921년 4월에 착공한 광주역사의 준공과 함께 광주~송정 간 철도가 개통됐다. 이는 1914년 1월 목포에서 개통식을 가진 목포~대전 간 호남선보다 무려 8년이나 뒤진 것이다. 광주~담양 간 철도가 같은 해인 1921년 7월 착공해 1922년 12월 개통했다.

남광주역은 1930년 12월25일 광주~여수 간 철도가 개통돼 학동에 역사를 짓고 신광주역이라 했다가 1948년 4월 개칭했다. 경전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효천역과 광주역 사이에 있었는데, 2000년 도심철도 이설과 푸른길공원 조성 과정에서 화장실 신축을 위해 쓸려나갔다. 남광주역은 매일 새벽이면 보성,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서 싱싱한 농수산물을 가져와 파는 '시골 아낙'들로 붐비기도 했다. 광주역과는 달리 과거 역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광주시민사회의 요구로 형성된 '학동8거리'=일제강점기 '개발'과 '수탈'이 반복되면서 궁민(지금의 영세민)으로 전락한 도시 빈민들을 위한 이례적인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실시됐다. 광주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광주천 개발사업과 함께 그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토막민(움막을 짓고 집단 거주하던 빈민)이 쫓겨나게 되자 이들을 위한 '갱생시설'을 강하게 주장했고, 일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방 최흥종 목사는 직접 광주를 방문한 조선총독을 만나 담판을 짓기도 했다.

1930년 일제는 광주천 하류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천 주변에서 거주했던 빈민 500여 호를 이주대책은 물론 이전료 한 푼 없이 내쫓았는데. 곧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지역민의 반발도 컸다. 이러한 실정에서 6년 뒤인 1936년 일제는 광주천방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목사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은 단체를 만들어 전남도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과 면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것이 갱생지구, 즉 학동 8거리다. 학동 8거리는 기존의 세민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철거민을 집단수용해 통제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이 내놓은 빈민주거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주차장으로 바뀐 광주여고, 다음 차례는?=광주여고의 전신은 1923년 3월 21일에 개교한 광주고등여학교다. 현재의 광주중앙초교(당시 광주공립소학교)에서 개교했으며, 1925년 4월 신축해 이전했다.

1937년 4월 광주대화공립고등여학교로 교명을 바꾸기도 했으며, 주로 일본인 자녀들이 다녔다, 광복과 함께 폐교됐다가 1946년 1월 28일 광주공립고등여학교로 재개교하였으며, 1946년 9월 광주공립여자중학교, 1951년 9월 광주여자고등학교로 개칭했다. 지난 2010년 3월 1일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하면서 90년이 넘은 역사를 간직한 교사는 사라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지어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중앙초교, 계림초교, 수창초교, 전남여고 등 옛 건축물들도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캄보디아 진료소 개소 3년…광주 나눔·연대 정신 빛났다

봉사단 매년 증가…4만명 혜택

청소년 교육·컴퓨터 지원도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올해로 개소 3년째를 맞았다. 광주진료소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알리는 거점이자 민간 주도 국제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희망나무 제공〉

올해로 개소 3년째를 맞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알리는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시가 후원하고 시민단체인 ㈔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광주남구의사협회장)가 주최가 돼 건립한 광주진료소는 현지인들에 대한 의료혜택 뿐 아니라 이주여성 친정 방문 및 의료봉사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희망나무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개소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현지인들이 3년간 연인원이 4만5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기간 광주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통해 매년 2000여명씩 이 기간 6000여명이 진료를 받았고, 현지 진료소의 의료진을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개소 첫해에 1만 2000여명, 이듬해 7000여명, 지난해 5000여명이 다녀갔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소 이래 3년간 다녀간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국내 의료진 및 봉사단 숫자도 매년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협력 의료기관들과 기업체 등이 늘어나면서 광주진료소가 현지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애초 개소 초기에는 아이안과,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미르치과병원, 우리아동병원, 광주병원, 서광병원 등이 중심이 돼 의료지원을 펼쳐왔다. 이후 조선대병원과 조대치과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광주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 등이 대거 합류하면서 의료지원 활동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 진료와 수술 중심에서 지난해부터는 현지 주민들의 위생 상태 점검을 위한 기생충 검사 등을 통한 질병 예방차원의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인구 10만3000여명의 캄퐁스퓨 주민들 중 2.5%(2640명)에 불과했던 의료혜택 수혜율이 광주 진료소 개소 이후 22.8%(2만3700명)로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진료소에서 수술이 힘든 어린이·청소년 10명을 광주로 초청해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해줬다. 올해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3주년을 맞아 좌안 백내장을 앓고 있는 비락(12)군과 심실 중격 결손증인 프응쫀다(11)양을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치료 중이다.

기업체들의 후원도 줄을 잇고 있다. 중흥건설이 매년 2000만원씩의 진료소 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고, 현지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한 JB금융그룹도 봉사단원을 파견해 첫 해외봉사활동을 지난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 시작했다. 또한, JB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점심 값을 아껴 모은 성금으로 광주진료소 인근 캄퐁스퓨주(州) 프놈스로우윗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컴퓨터 21대)을 만들어 기증, 현지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권일·오광록기자 cki@

여야,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검찰·국세청 조사 촉구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20명 중 102명,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20명, 정의당 의원 6명 중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 중 1명, 무소속 의원 5명 중 3명 등이 동참했다고 의원모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고리 공론화위 "공론조사로 결론 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론화위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북한 미사일 발사징후 없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 예상일로 추정된 27일 "아직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 예상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최근 ICBM급 미사일 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움직임을 보여 왔고 발사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이날이 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를 인용한 외신보도가 최근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고 속에도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어그러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미연합 정보 자산 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융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융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I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앙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의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 · 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